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봄을 맞으며,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대학·청년1부 총동원 전도 펼쳐

대학부: 3월 26일(주) - 초청전도잔치 제1차 깃발대회

청년1부: 3월 28일(화) - 명동 총동원전도

대학부는 2000년대 민족과 세계를 섬길 자도자 2000명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성령비전 2000> 제1차 깃발대회의 행사로 지난 3월 26일(주일) 갈릴리움에서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사진). 대학부는 이 행사를 위해 매일 저녁 7시에 열린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였으며,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를 집중적으로 전도하였다. 그 결과 1부 집회와 2부 사역단별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된 전도집회에 117명의 대학생이 새로이 등록했다. 대학부는 연이어 31일(금) 저녁 7시에 만나홀에서 감사기도회를 가진 후 모두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였다.

지난해 말부터 대학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성있는 체제로 전환하며 준비해온 대학부는 이번 제1차 깃발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고 있다.

현재 8개 사역단(국내전도사역단, 해외선교사역단, 통일준비사역단, 사회봉사사역단, 문화번역사역단, 장애인선교사역단, 기도협력사역단, 특별사역단)이 있고 각 사역단에는 팀을 구성하여(팀은 보다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내전도사

역단에 병원전도팀, 청소년전도팀 등) 모든 회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팀에 소속되어 교회에서, 학교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다. 현재 대학부에서는 54개 팀이 있는데 앞으로 100개팀으로 증설하여 2000명의 회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2차 대회와 여름 사역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청년1부는 지난 화요일(3월 28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노방전도를 하며 전도활동을 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찬양을 겸한 전도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상가에서는 매주 화요일 찬양전도를 기다릴 정도가 되었고 전도팀에 옴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1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온 회원들의 전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위해 명동전도팀외에 전 회원이 참여하여 명동전도를 계획하고 이날 실시했다. 특히 이날 전도에는 전도위원회 소속 장로(김재명, 강협, 이하영, 박인건, 정정주)들이 함께 하여 청년들을 격려하며 전도활동에 참여하여 청년들이 사기충천한 가운데 힘있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부터 6월에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면서, 지난 3월초에 있었던 1·2·3교구 지역의 총동원전도, 대학·청년부의 총동원전도 등을 통해 교회가 새로운 전도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4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9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4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9교구가 시작한다. 9교구는 4월 10일 오전 9시까지이다.

2. 예수사랑 큰잔치 설명회

오늘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설명회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오는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이 설명회에서는 금년 예수사랑 큰잔치의 전체 흐름과 방향, 방법들이 설명되기에 온 교구들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참된 예배를 위하여

목도부터 송영까지가 예배시간

예배 폐회 전에 나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
10분 전에 참석하여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 첫번째는 '신령한 예배'이다. 95년도 목회지침의 첫번째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당회장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목회지침이 94년 11월 27일자 <주간충현>에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예배위원회의 계획도 95년 1월 8일자 <주간충현>에 발표했다.

이에 대한 첫번째 실천사항으로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입장하여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금년들어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이를 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쓰고 생각 할 일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예배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배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과 생활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헌신)이 중요하고, 이런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한다. 차임벨이 울릴 때는 이미 그 예배의 설교자, 사회자, 대표기도자,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예배위원, 음향실 봉사자, 차광관리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끝나고, 성령본문과 교독문, 찬송가를 따라 찾아두고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은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10분 전에 입장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당 1층 예배실만이라도 예배시작 전에 참된 예배 분위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1층에 다 차기까지는 2층, 3층 문을 열지 않기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시작 전에 가야 하며 그러므로 큰 은혜가 되었다는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예배는 순서 순서가 의미있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처음 목도에서 마지막 축도

와 송영까지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에 어느 순서도 아무런 의미없이 들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과 온 회중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만 듣고 찬송하는 시간에, 또는 축도하는 시간에 바쁘게 나가는 사람이 꽤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설교 후 찬송이 끝나면 축도가 진행되는 중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게 성경, 찬송, 주보 챙기는 소리가 시끄러운데 이것도 시정되어야겠다. 예배는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할 때 끝나는 것이다.

또한 헌금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오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된다. 아가들은 탁아부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배려도 아끼지 말기를 기대한다. 옆의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한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친다. 예배가 더욱 잘 드러짐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개인과 가정과 부서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앙의 위인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 같은 간증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예배의 양태가 삶의 양태를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생활 전반에 활력을 되찾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크게 성숙한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께서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요. 4:23). 우리들도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열심을 가지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우리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와 은총을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겠다.



총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0 ●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

(계 13:11-18)

본문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로’로 종류는 꼭같다, 다르기는 한데 종류는 꼭같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즉 1절에 나오는 짐승이나 11절에 나오는 짐승이나 그 본질, 성격, 하는 일들, 목적은 꼭같다는 것입니다.

1. 두 짐승에 대한 표현

첫째로 두 짐승의 근원과 출처는 다릅니다. 첫째 짐승은 근원이 바다라고 했고, 두번째 짐승은 근원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즉 첫번째 짐승은 바다, 즉 열방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두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땅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 혹은 그런 기관, 정권,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겉의 모양은 아주 온순하고 친절해서 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온유한 것 같고, 사랑해주는 것 같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더욱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뿔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뿔이 일곱인데 반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뿔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의지와 느낌의 표현이고, 상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정부나 기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이 뒤에서 조정할 때 조정받는 어떤 권력, 혹은 정권, 기관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짐승보다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2.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

첫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11절). 그 전에는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안보였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나타나 사탄의 주구(走狗)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때로 권력자일 수도, 정권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새끼 양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 모든 기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리 때문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CC라는 말은 세

계기독교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이들은 한때 공산 게릴라들을 원조했습니다. 소위 ‘인권운동을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선교비를 게릴라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 문선명의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세번째는 공산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공산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자주 고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겉의 모양은 기독교이고 겉의 모양은 양같지만 그러나 그 정체는 용처럼 말하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로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은 그들의 권력을 말해줍니다. 양의 힘은 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뿔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뿔, 영적인 뿔입니다. 종교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넷째로 용처럼 말합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용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섯째로 큰 이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할 만큼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켜야 굉장한 주의 종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신유의 은사 하나뿐입니까? 정말 유능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MBC에서 비디오로 방영해주었지만 모 기도원 원장 사건 같은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필리핀 바기오에 가보면 소위 심령수술, 영적인 수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모 가수가 그곳에 가서 암수술을 받고 왔다고 한때 떠돌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꾀면술입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중에 포로를 잡게 되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망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개 이마에다 쇠를 벌줄게 달아주어 주인을 표시하는 표를 찍습니다. 이것이 너무 잔인해서 나중에는 손에다 찍기도 하고 머리에 띠를 띠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텍사스 같은 곳에 가면 지금도 소나 말을 카를 때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없이 자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바로 용,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사탄의 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666이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인간의 활동, 직업,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행위,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마는 심령을 뜻하기도 하고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만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광광 찍습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에 바로 찍힙니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요한 결론이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육이니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몇 마리인지 수를 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장구나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보고 ‘아 그 사람은 수가 높다’ ‘단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사탄의 전술전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고 그 영들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666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66이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솔직하게 666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 답입니다. 666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시대마다 666의 정체는 변합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를 빼면 6입니다.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숫자입니다(18절).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666. 이것은 삼중적인 6을 뜻하는데 인간적인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확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마트리아 방법에 의해서 그 정체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알파벳의 철자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개혈적인 수가 있다는데 착안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A는 100. B는 거기

에 하나를 올려서 101, C는 102 이런 식으로 하니 H는 107이 됩니다. 그러면 I는 108이죠? 이런 식으로 즉 계산하니 히틀러(Hitler)가 바로 666입니다.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등 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도미시안 황제, 혹은 네로도 계산해 보니까 666이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거리이고 코에 걸면 코거리입니다. 제멋대로 저 싫어하는 사람은 다 666입니다.

두번째로 컴퓨터를 666이라 합니다. 컴퓨터의 바코드 있지요? 바코드가 666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사지도 않고 컴퓨터 사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크레딧 카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666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없이 자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하나님없이 자기대로의 바벨탑을 쌓으면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도탈할 수도 없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바로 용,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항상 사탄의 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전술전략을 연구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신감주로 무장해서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군 입대를 앞두고 ◆

하나님의 원리로.....

오재걸
(대학부 회원)

입 대 날짜를 약 10여일 남겨둔 지금, 몇 자의 글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며 지난 몇 해 동안 대학부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군입대를 앞에 둔 이들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 두려움, 자포자기, 그러다가 가끔 빠져나오는 용기(남들 다 하는데 뭐.....), 복잡함, 난해함, 쉽게 말해서 뒤죽박죽의 헛갈림 등이 떠 오른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두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결론지어 말한다. "아직 내가 군대 간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나!"라고.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예비역들이 말하길 남자라면 한번쯤은 꼭 가야 한다는, 그러나 죽어도 두번 다시 가지 않겠다는 곳)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막연함 때문이라.

신년 초, 2월의 대학 졸업과 함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마감하고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해야 할 95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다짐들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중현교회(목정궁원)에서 뉘날았고, 대학부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었다. 지난

시절, 대학과 대학부에서의 4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무척 많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진실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지표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 내 삶의 전체와 구석구석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고백("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잠 16:9)로 이어지며 이 순간 95년의 동일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으로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낼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군생활은 나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여명의 소대원을 이끌어야 할 소대장(단순히 세상적인 소대장이 아니라 크리스천 젊은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사회 개혁적 헌신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해야 하기에 지난 2년간 ROTC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 부대를 향한 꿈을 키워왔다. '어떻게 내 부대와 부대원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앞에 지난 대학부 동계 수련회는 좋은 지표를 제시해주었다. 이는 곧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이다. 곧 내 부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는 이것이다.

'하하하' 하지만 혹자는 이를 보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비웃음은 당연하다. 위의 것들은 한달 이상일 뿐, 결코 현실의 군대모습과는 상관없는 구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군대라는 곳은 그만큼 세질한 곳(군대 = 합법적으로 살인을 교육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을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라고 말하며 평화를 위한 필요악의 선택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초의 아담의 죄로 인해 뿌려진 세상의 죄가 응축되어 파생된 집단이라 볼 수 있는)이니까.

성경 속에서 위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는 '육체의 일(19절)'이 대조되어 적혀 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우리는 때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곤 한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 습관적이어서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때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24절)라고. 앞으로 내 앞에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닥쳐올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군대는 나에게 세상적인 원리로서 부대를 이끌기를 요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를 선택해야 할 용기(1)가 필요하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러했듯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를 이긴 믿음의 선배들처럼.....

글의 서두에 적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났다.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바울은 동요치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면, 나는 나의 소대원 앞에서라도 지금의 길을 인도하신다.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붙이셨다면, 나에게는 소대원들의 영적인 생명을 부탁하셨다.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은 그의 로마사람 신분을 적절히 이용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장교라는 도구를 하나 더 허락하셨다. 비단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속한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나는 결코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아니다. 여지없이 부족하고 나 하나도 감당치 못하는 모습이기엔 어쩌면 위와 같은 '꿈'들은 긴급한 순간에 떠올리는 신앙인의 습관이거나 혹은 교만한의 넘드러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 그 분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신다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능력을 내게도 부어 달라는 소망('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이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리라. 더불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바 우선, 내가 속한 부대 내의 교회에 헌신할 소원한다.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군대에 가서는 개인의 QT만을 할 뿐 주일에도 그곳 교회를 잘 섬기기 어렵다고 한다. 부대 속에서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드린다. 또한, 그곳에서 좋은 신앙동지(상관이든지 부하든지)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지금도 군대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위하여.....



◀ 칼럼 / 역심동에서 ▶

기독교문화 창달을 생각한다

윤명식
(장로, 기획실장)

문화에 대한 이해

만일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문화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문화란 인간만이 창출하는 인간 삶의 총체적 활동이다. 인간이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다보니 사회윤리규범을 만들었고,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예술이, 자연적 사물의 본성과 이치를 알고자 하는 데서 자연과학이, 자연과학을 인간의 삶에 유용하도록 이용하고자 하는 데서 기계기술이, 과거를 거울삼아 교훈을 받고자 하는 데서 역사철학이, 질서있고 조화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법질서와 법학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체육과 의학기술이 발달하였고,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인식하고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며 신 앞에 귀의하고자할 때 종교를 갖게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연구할 때 기독교 신학이 나왔다. 이처럼 인간은 그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가치있는 문화 세계를 창조하여 그 속에서 태어나, 그 문화에 젖어들어 적응하며 교육과 훈련을 받아 하등의 거부감도 없이 가장 자유스러우며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와 문화는 우리 삶의 두 가지 자원이다. 양자는 일치될 수는 없으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종교는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라고 하였다. 양자는 실체와 형식의 관계를 갖는다. 종교적인 정신이 저변에 없는 문화란 없다. 우리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조는 불교가, 조선조는 유교가 문화의 저변에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서구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서구 문화의 저변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은 출생하면서 기독교 분위기에서 숨쉬고 자라왔기 때문에 누가 전도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만일 오늘의 한국 땅에 기독교 문화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독교 문화 창달의 당위성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문화적 사명을 주시었다(창 1:28). 모두(冒頭)에 언급했듯이 종교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기독교와 문화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 속에 악을 배아(胚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독교 문화란 성경에 입각한 우리 삶의 총체적 표현이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 속에 기독교정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나라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불과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짙지 못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기독교인만이라도 바르게 살면 세상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문화의 터 위에서 전도할 때 그 열매는 더욱 크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 문화 창달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청지기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시종들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몸된 교회 섬기면서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오

청한자는 많으나 택한자는 적사오니
지극한 충성으로 맡은 일을 처리하여
기쁨이 충만한 주의 일꾼 되십시오

청렴한 생활로써 성도들의 본이 되고
지도하는 자세로서 새신자를 양육하여
기초가 튼튼한 천국시민 키우소서

창소부 자세로써 봉사하는 마음갖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사수하여
기독교 가는 길을 몸소 실천 해오소서

창년의 열정으로 천국 확장 앞장서고
지식을 쌓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기특한 주의 종이란 칭송을 들으소서

창종의 성령바람 기운차게 일으키고
지구촌 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종에 되십시오

박철구(집사, 중동2부 부장)

토·막·소·식

◆ 영아부는 지난 주일(3월 26일)에 학 부모초청 좌담회(사진)와 학부모 성경 이야기대회를 은혜중에 잘 마쳤다.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 했다.



- ◆ 유치부는 4월 16일(주일) 부활주일을 맞아 계란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 ◆ 탁아부에서는 늘어나는 탁아들의 숫자에 따라 탁아부에서 봉사할 임시교사를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아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빠를 찾는 아기들을 위해 남교사가 꼭 필요하다.
- ◆ 초등2부는 부활절 암송대회를 4월 16일에 갖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 ◆ 초등4부에서는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녀가 안나오는 가정을 살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또한 4월 2일부터 9일 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글짓기 및 그림을 집에서 그려 제출하여 4월 16일(주일)에 시상한다.
- ◆ 초등5부는 오늘 제1학기 성경교사를 본다. 범위는 1~11과까지.
- ◆ 초등6부는 제1차 안드레전도운동(초청잔치)을 위한 전도에 관련된 포스터(20점), 표어(20점), 수기(20점)를 공모하여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 ◆ 중등1부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고

학원전도회 기도회

학원전도회 기도회가 매주일 11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학원전도회실(본당 지하 1층)에서 있다. 회원은 물론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난주간, 십자가, 부활의 의미 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리기, 시 등을 접수 받고 있다. 4월 9일까지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중등2부는 4월 4일~5일 학생철야기도회를 기도원에서 갖는다. 4월 16일 찬송가부르기대회로 모이는데 과별 두팀으로 나누어 준비하며 찬송가 149~160장 중에서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선정하여 부른다. 4월 23일에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 ◆ 중등3부는 4월 9일 부활절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부르기대회, 4월 23일은 여름수련회 준비모임으로 모인다.
- ◆ 고등부 소그룹 연합기도회가 분반공부 후 11시 20분~12시 20분까지 아멘홀에서 있다. 해당되는 8개 소그룹 학생과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참석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 ◆ 장년2부는 4월 23일(주일) 찬송가 부르기대회로 모인다(곡목은 지정곡 43장과 자유곡 1곡).
- ◆ 사랑부는 4월 9일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연다. 예쁘게 준비해서 잘해주세요.
- ◆ 에바다부 성인반은 4월 2일 찬송가·복음서가 경연대회를 갖는다. 청년부·장년부 각 반별로 1개팀으로 하여 찬송가 543장과 자유곡 1곡으로 한다.
- ◆ 새가족양육부는 4월 19일 성경빨리찾기 대회를 갖는다.
- ◆ 할렐루야찬양대는 어제(4월 1일) 소프라노 단합대회를 가졌다.

4월 7일 금요일집회

큰빛남성코랄 특별순서

오는 4월 7일(금) 금요일집회에는 큰빛남성코랄(대광OB 합창단)의 특별순서를 갖는다. 큰빛남성코랄은 대광고등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으로 국내의 공연을 통해 수준있는 합창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요일집회는 찬양시간에 교회 찬양대의 솔리스트들이나 교회 밖에서 초청되어 온 특별출연 또는 특강, 간증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함으로 우리 교회 특유의 금요일집회 모습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4/3(월) 전주 35사단 군인교회 입당예배 설교, 4/7(금) 분당 마을교회 입당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4/3(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4/6(목)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 위임예배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소서.

충현기도원에서 고난주간 특별 금식 부흥회

4월 10일(월) 밤부터 13일(목) 밤까지

충현기도원은 고난주간을 맞으며 금식부흥회를 열기로 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10일(월) 밤부터 13일(목) 밤까지 계속될 금식부흥회는 매일 오전 5시, 낮 11시, 오후 8시에 집회가 있게 된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최해일 목사, 장경철 목사(전도위원회 지도)이다. 기도원에서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매일 교통편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충현교회에서
매일 오전 9시~10시 출발
매일, 오후 6시~7시 출발
- 성남 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간중, 오전 10시 10분 출발
기간중, 오후 7시 10분 출발
- 분당 전하리 교회 앞에서
기간중, 오전 10시 20분
기간중, 오후 7시 20분

미혼남녀에게 공개하기로

예신부 강의, 매주일 11시

예신부는 그동안 결혼신청자에 한하여 실시되던 예비신랑신부교육을 위한 강좌(8주)를 모든 미혼남녀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매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208호에서 실시되는 예신부 교육은 1부 강의와 2부 반별 성경공부로 진행되고 있다. 결혼전 예비신랑신부들이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하는 8주제를 각각 전문가들을 통하여 교육하고 있는 예신부과정은 본 교회에 결혼하려는 커플은 필히 이수해야 한다.

부활절 축하음악예배

4월 16일, 아멘찬양대가

교회는 95년도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를 아멘찬양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부활절 음악예배는 부활주일인 4월 16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된다. 이 음악예배에는 충현오케스트라도 함께 연주하게 되며 이를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표어를 공모합니다

제 4 회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에서는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예수사랑 큰잔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표어를 공개 모집하기로 정하고 오늘부터 표어를 모집한다.

표어는 부르기 쉬우면서 짧고 전체의 의미를 잘 함축한 내용이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까지 제출처는 각 교구 간사실 및 사무국 또는 <주간충현> 편집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보며 신앙적 유익과 성도의 교제 의장으로 이용되는 <주간충현>과 <계간충현>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는 어떤 형식의 글도 되며, 모두가 함께 보고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글로 삶의 영역에서 보고 느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면 됩니다.

글의 분량은 원고지 4매~10매 정도(PC 사용자 A4 1매~1매 반)이면 됩니다.

제출장소는 선교관 303호 <주간충현>편집실 (전화 552-8200, 교환 348, 349)



군목후보생 수련회

교회는 사단법인 군복음화 후원회(이사장 박선희)가 군목후보생들에게 군입대 전 실시하는 예비교육 협조 요청에 따라 군목후보생 9개교단 31명에 대한 군목후보생 수련회를 실시 했다. 3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 본 수련회는 군목으로 입대하는 자들에게 군선교의 중요성 및 사명감 고취, 군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리는 수련회로 매년 우리 교회가 협조하여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이날 개회예배에 설교를 했다.(사진)